

# 여성운동과 민통련



현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권미혁

1989년식 이화여대 졸업 민정련 상임위원 여성평우회  
민통련 중앙위원 여성민우회

여성운동에서 민통련 활동은 어떤 의미였을까?  
여성평우회의 민통련에 가입한 것은  
민족민주운동의 연대체에 여성운동이 참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다.

여성평우회는 1986년 10월 민통련에 가입했다. 그리고 1987년 8월에 여성평우회를 해소하면서 민통련을 탈퇴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운동에서 민통련 활동은 어떤 의미였을까?

처음 원고를 부탁받고 한동안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우선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민통련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활동 속에서 적극 피력했던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결국 민통련에 가입하게 된 전개 과정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성평우회의 민통련 가입 자체가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이 전개되던 당시의 시대상과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여성평우회의 민통련 가입 경과

여성평우회는 1983년 창립 때부터 기존의 여성운동과는 다른 여성운동을 지향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창립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우리는 남녀를 차별하는 성차별 문화개혁을 위해 일한다.

둘째, 우리는 남녀공동의 노력으로 남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 일한다.

셋째, 우리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일한다.

당시 여성평우회의 주 멤버들인 조형, 지은희, 이미경(대표단), 이경숙(사무국장) 등은 기존 여성운동과 달리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기층문제, 그리고 분단의 모순을 극복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이는 75년 세계여성대회와 이효재 선생님이 소개하신 제 3세계 여성운동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같은 성격은 문화집회인 '여성문화 큰잔치'의 주 내용을 기층여성 문제로 한다거나(버스 안내양 자살사건을 다루는 등) 인천 만석동에 빈민여성을 위한 사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평우회는 당시 운동주체를 민중으로 설정하고 비합법, 반합법을 지향하던 많은 민주화 투쟁 결사체들과는 다르게 대중운동을 지향하며 공개운동 방식을 택했다. 그 이유는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우선 여성문제를 알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여성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여성평우회의 활동은 여성운동 진영에서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그만큼 기존의 여성운동이 제약할을 못하면서 대중들의 신뢰를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학생운동을 통해서 배출되었던 많은 여성운동가들은 이같은 여성평우회의 노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여성대중운동을 하기엔 시대상황이 너무 엄혹하므로 여성운동도 가장 최우선의 과제를 민주화투쟁에 두어야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학생운동의 반합법, 비합법투쟁 경험만을 가지고 있던 젊은 여성운동가들이 대중운동체라는 다양한 운동방식과 조직노선을 수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했다.

시대적 요구인 민주화투쟁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여성운동 선배들에 대한 비판은 비슷한 시기 창립했던 민청련 활동으로 인해 더욱 치열해졌고, 2년 후에 발족한 민통련은 이제 민주화를 위한 범계급, 계층의 연대문제를 여성운동 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

들었다.

이 같은 논쟁은 특히 1985년 8월 학원안정법의 발표로 더욱 격렬해졌다. 이 법을 저지하지 못하면 공개운동은 살아남지 못하므로 모든 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학원안정법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여부를 계기로 해서 여성평우회 내의 정치투쟁이 시작되었다.(당시 민통련은 39개 단체와 연대하여 학원안정법제정에 반대하는 ‘학원안정법반대투쟁전국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었다.)

이 토론 과정에서 정치투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여성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여성문제를 매개로 한, 그리고 대중운동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소극적 범위에서 정치투쟁을 하고 싶어했던 당시 지도부와 적극적인 정치투쟁의 참여를 원했던 젊은 활동가들이 정치투쟁에 동의하고 결국 여성평우회 내로 정치투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민청련 여성부 출신의 심복자, 조경숙, 권미혁 등의 활동그룹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운동진영에서는 민주화투쟁의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었지만 다양한 사상투쟁이 전개되었고 그 사상투쟁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애초에 ‘군부독재타도’ 정도의 수위로 정치투쟁을 하고 싶어했던 여성평우회 지도부에서는 새로운 젊은 여성그룹의 주장인 ‘체현의회설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결국 여성평우회는 급진적으로 정치투쟁을 원하는 그룹으로 지도부를 교체하였다.

그러나 선도적인 정치투쟁을 하기를 원했던 그룹들 내에서도 한국사회의 성격을 둘러싼 운동노선의 갈등으로 인한 노선투쟁이 일어났고 결국 체현의회그룹이 탈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은 30여명은 정치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대중운동 쪽에 무게를 둔 여성운동 방향을 표방하였고, 대중여성운동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여성운동체를 결성할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이 그룹은 같은 취지의 여성운동가 선배들과 결합하여 1987년 7월 한국여성민우회라는 새로운 여성대중운동 단체로 거듭났다.)

당시 새로운 여성평우회 그룹이 가장 먼저 한 결정 중 하나가 민통련의 가입이었다. 이유는 민통련이 갖는 상징적 의미, 즉 민족민주운동의 연대체에 여성운동이 참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다.

당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을 비롯해, 민청련 여성부, 권인숙 성고문 사건 때 성고문 규탄대회를 열었던 한국수녀회 장상연합회 등 민주화 투쟁을 활발하게 하던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여성평우회가 서둘러 민통련에 가입한 이유는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려는 열망

뿐만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에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던 독자적인 여성운동체가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여성평우회가 여성대중들에게 갖고 있었던 일정한 상징성과 긍정적 위상을 고려한 것이었다. 특히 범 계급, 계층운동과의 연대에 여성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민통련 활동의 참여

여성평우회는 가입 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했던 집행단위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면서 민통련과 기타 연대기구에서 주관하는 여러 집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당시 비공개로 운영되던 민통련기관지 발행에 참여했다. 이같은 활동은 이후 여성단체연합과 국민회의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여성평우회의 민통련 활동을 평가해보면,

민통련이 벌이는 민주화투쟁을 주도하거나 선도할 만한 역량이 있는 활동은 아니었고,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과제에 여성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도 나타나는데 민통련이 내세우는 각종 테제에 여성의 처지와 권리를 적극 담아내지 못했다. 이는 역량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당시 여성운동이 여성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각론을 내세울 만한 논리나 경험이 쌓여있지 못했던 점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민통련이 발족한지 20년이 되었다.

2년 전엔 여성평우회가 발족 20년 기념행사를 했다.

이 글을 쓰면서 왜 좀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하는 반성과 동시에 당시 치열하게 고민하던 모습이 도리어 그리움으로 기억되는 것은 왜 일까?

어쩌면 우리 젊은날의 그 치열함이 지금의 우리 사회와 우리들을 만드는 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 끊임없이 수배와 구속을 감당했던 민통련 활동가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여성들도 그 가운데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민주통일민중운동 선언

온 민족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온 민족의 매일매일의 온갖 삶이 위협받고 있다. 순간순간 마시는 물과 공기로부터 평화와 안전의 보장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삶에 필수한 모든 조건이 심각한 위협 밑에 놓여 있다. 도처에서 삶을 파괴하는 서구 문명의 세계 지배와 무자비한 국제 열강의 패권 싸움, 그리고 그것에 의한 분단 지속과 온갖 삶의 파괴의 지속이 그 원인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종류의 삶도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으며 더욱이 이 위협은 매일 매순간 증대되고 있다.

만중의 나날의 삶은 공해, 불경기, 도산, 저임금, 저곡가, 생존박탈권, 억압, 빈부격차, 폭력,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무자비한 수탈과 온갖 민주적 사태로 여지없이 부서지고 있으며 온 바다에는 한바다를 순식간에 쓸발으로 만들어버릴 무수한 미사일을 가득 실은 강대국들의 잠수함들이 사망에서 활개치고 우리 국토는 온통 핵발로 변해가고 있다. 민중정서로 민족의 가슴을 적셔 민족을 끝내 민족이도록 하는 민족문화의 현실은 매편적 퇴폐적 소비문화와 획일적 이질문화로 병들어 식민지 시대에 이어 분단시대에 와서 완전히 찢어지고 있다.

죽음의 노래소리는 이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들린다. 우리 자신의 가슴속에서 마저 울린다. 민족은 과연 이 파멸적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구라과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의 강요로 이루어진 개항 이후 지난 100여년 동안 우리 민족은 외세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된 적이 거의 없었다. 분단 40년간 일관되게 우리 민족의 숙원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주통일 국가의 수립이었다. 갑오농민전쟁, 3·1민족해방운동, 4·19민주민중혁명, 유신체제 아래서의 가열찬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0년 5월의 장렬한 광주민중항쟁은 비록 외세와 반민족적인 그 추종자들에게 의해서 일시적 좌절을 경험했으나 연면한 민족운동의 전통속에서 민족 염원을 확인 결집하고 있다.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민족운동의 전통은 민주화운동과 민족통일을 통한 민족적 숙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내외의 조건은 민족적 숙원의 실현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다. 미국, 일본, 구라과의 다국적 기업의 이익과 그들의 정치, 군사, 문화적인 세계제패를 위해, 소련 중공의 자국적 경제적 이익과 이른바 세계혁명의 정치, 군사, 문화적 진술의 필요에 의해 이 민족·민중에게는 참혹한 장기적, 전면적인 생명 파괴와 죽음이 강요되고 있다. 이러한 강대국의 패권에, 정치적 흥계에 등을 대고 분단 고정에 힘입어 민족 생명력의 전면적 지속적 약화와 민중의 분열, 해체, 무기력에 기생하여 남북 양정권은 극소수의 독점 지배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장기독점을 유지 보전 확대하면서 민중의 생명을 무차별 파괴하고 있다. 남북한 두 사회에 있어서의 독재와 독점, 매편적 문화와 경직된 문화, 사회적 공동체의 실질적인 분해, 특히 정치에 있어서의 전면적이고 항속적인 비민주적 현상은 바로 강대국 패권과 그와 결합한

---

국내독재, 독점세력에 의한 민족 민중 생명 파괴의 전형이다. 남북 양 정권의 구호에만 그친 통일정책은 모두 정권안보를 위한 분단독재의 외연적 표현이다. 군사독재정권은 외채가 5백억달러를 넘어 국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했는데도 수입자유화를 강요하는 외세에 굴종하면서, 정치적·경제적 예측을 정권 안보의 디딤돌로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민중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억압하면서 통일과 남북대화를 독점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은 우리 민족의 불행의 최대 원인인 분단을 정권안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명백한 죽음의 계절 한복판으로부터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찬란히 동터오는 새 삶의 위대한 새벽을 바라보고 있다. 분단 대신 통일이, 전쟁 대신 평화가, 무자비한 국제 열강의 패권 싸움 대신 슬기로운 민족의 참된 주체가, 도처에서 삶을 파괴하는 서구문명의 세계지배 대신 온 인류와 생태계가 함께 살아갈 친교와 공생의 낙원이 동 터오르는 새로운 문명의 새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분단으로 찢기고 짓밟힌 바로 이 민족으로부터, 민족의 삶의 주체인 생활하는 민중으로부터 우렁차게 터져나오는 것을 감각에 차서 바라보고 있다. 온 민족의 통일되고 해방된 평화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온 민족의 삶, 민족 생존이 크고 당당한 깃발 밑에 그 어떠한 반대자도, 외세에 등을 던 그 어떠한 종류의 배신자도 있을 수 없다.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주체적 생존의 실천적 획득은 오로지 민족적 삶의 실체인 민중의 광범위한 조직적 역량을 주체로 하여 민중 자신의 온갖 형태의 빼앗기고 찢긴 삶을 회복하고 통합하는 일상적 지속적 전면적인 민중생존운동을 통해서만 이룩되는 것이다. 민중적 삶과 생명의 현실적인 회복을 통해서만 민족은 도처에서 삶을 파괴하는 반인간적 문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단호하고 자신에 찬 민족적 자존에 의해 이끌려지는 민중의 광범위한 조직적 역량의 등장에 의해서만 민족은 무자비한 국제열강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민중의 줄기찬 보편적 삶의 일상적인 통합운동을 통해서만 민족은 비로소 숙원인 평화통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민중생존의 이 크고 당당한 깃발은 민족 내부의 모든 삶과 이념과 제도들이 준거해야 할 대헌장인 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각계각층의 민중들의 온갖 활동, 그리고 개인과 집단, 국민과 정부, 민간과 관료 할 것 없이 일체 민족 구성원의 삶과 활동이 이 깃발을 중심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이 헌장에 준거하고 판단되고 추종되어야 할 것이다. 현안의 민주화문제 일반도 이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와 같은 대전제에 서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1985년 5월 10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